

5대 은행 9월 주택담보대출 2조2천억 늘었다

‘역대 최대’ 8월比 둔화...은행권 대출 억제에 기저효과도 ‘둔화 추세 판단 일러...주택 가격 기대·이사 수요 불확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에 더해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달 들어 주춤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유례없는 수준이었고, 이달 들어 주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본격적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5대 은행 주택담, 지난달보다 증가세 둔화...주간 기준으로는 증가 폭 확대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2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70조8천388억원으로, 8월 말(568조6천616억원)보다 2조1천772억원 늘었다.

월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던 8월(+8조9천115억원)보다는 증가세가 둔화했다.

은행권은 지난 7월부터 가계대출 금리를 줄인상한 데 이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 주택담보대출 한도·만기

축소 등 강력한 대출 억제 조치를 쏟아냈는데, 그 효과가 시차를 두고 드러나기 시작한 셈이다.

또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9월1일)을 앞두고 지난달 대출 막차 수요가 쏟아진 데 대한 기저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용대출도 같은 기간 1천43억원(103조4천562억원→103조5천605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달 들어 5대 은행 전체 가계대출 증가 폭은 2조600억원(75조3천642억원→77조4천332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주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가팔라졌다.

5대 은행의 지난 9일까지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8천856억원이었는데 6일부터 12일

까지는 1조2천937억원으로 커졌다.

1명일당 증가 폭이 소폭 확대된 데다(2천209억원→2천587억원) 5대 은행이 지난주에만 정책대출 약 4천949억원 어치를 유동화해 장부에서 털어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주택담보 증가세가 쉽사리 잡히지 않는 모습이다.

실제로 주택 거래량은 7월에도 큰 폭으로 늘었다. 주택담보 통상 주택 거래 시점으로부터 두세달 시차를 두고 집행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전국 아파트 매매(신규일 기준)는 5만4천732건으로 6월(4만3천300건)보다 26.4% 늘었다. 특히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는 6월(6천150건)보다 54.8% 편 9천518건으로 집계됐다.

◇9월 가계대출, 8월보다는 둔화... 장기 추세로 이어질지는 불확실성 커

금융권 안팎에서는 9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8월보다는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이달 들어 첫 5영업일 기준 가계대출이 은행권 기준 1조1천억원 늘었는데, 이는 전달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 폭이 절반 정도 수준”이라며 대출 규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도 지난 11일 가계대출 흐름에 대해 “9월 이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대책 효과가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며 “휴가 자금, 추석 저가 매수 등

의 8월 일시적 요인도 사라지면 9월에는 가계대출 증가 폭이 8월보다는 축소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가 장기 추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주택 가격 상승 기대, 이사철 수요, 정책금리 인하 전망 등 가계대출과 관련한 불안 요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향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 장기화 여부와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며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불안이 이어지겠지만 이후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는 견해와 불안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병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가을의 맛, 시로 맛나다’ 홈플러스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가을의 맛 시로 맛나다’를 주제로 가을 대표 인기 먹거리와 명절 연휴기 립민 음식에 지친 입맛을 살려줄 매운 음식 등을 할인가로 선보인다. (홈플러스 제공)

중소기업·대기업 생산 회복세 대조

중소 2년째 감소 vs 반도체·車 대기업 가파른 증가

중소기업 생산이 2년째 후퇴해 대기업 생산 회복세와 대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자동차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가파르게 증가했지만, 그 온기가 중소기업까지 퍼지는 ‘낙수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7월 평균 제조업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98.2로 나타났다. 지수

는 2020년 100을 기준으로 한다. 아직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보다 중소기업 생산이 낮은 수준이라는 의미다.

1-7월 평균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2019년 102.6에서 2020년 97.7로 떨어진 뒤 2021년 100.4, 2022년 100.7로 다시 회복했다. 그러나 지난해 98.5로 2.2% 떨어진 뒤 올해(-0.3%)까지 2년째 감소세다.

반면 대기업 생산지수는 지난해 바

닥을 다지고 증가하고 있다.

대기업 생산지수는 1-7월 평균 2022년 115.2에서 지난해 106.5로 7.6% 줄었다가 올해 113.7로 6.8% 증가했다.

분기별로 보면 대기업 생산지수는 지난해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한 이후 올해 2분기(5.8%)까지 4분기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중소기업 생산은 2022년 4분기(-3.5%)부터 작년 3분기(-0.3%)까지 내리 감소하다가 지난해 4분기(0.1%) 소폭 늘었다. 올해 1분기(-1.5%) 다시 줄어든 뒤 2분기 0.3% 증가해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끌’ 40대, 부채가 소득보다 2.5배 많아”

연령별 LTI 분석 결과...野 차규근 “자산가격 안정 해법 찾아야”

우리 국민은 평균적으로 연간 소득의 두 배가 넘는 막대한 규모의 대출 잔액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 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계소득 대비 부채 비율(LTI)은 233.9%로 집계됐다.

전체 LTI는 지난 2022년 2분기 238.0%를 단기 고점으로, 그해 3분기 237.0%, 4분기 236.6% 등으로 차츰 낮아졌다.

지난해에도 1분기 235.6%, 2분기 234.2%, 3분기 234.0%, 4분기 233.9%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왔으나, 올해 1분기 들어 전 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올해 1분기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의 LTI가 전 분기 대비 상승했다.

30대 이하 LTI는 지난해 4분기 238.7%에서 올해 1분기 239.0%로 높아졌고, 40대는 233.5%에서 233.7%, 60대 이상은 239.1%에서 240.8%로 각각 올랐다.

50대는 208.1%에서 205.6%로 하락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 중 40대는 대출 잔액 합계가 연간 소득의 2.5배를 돌파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부채 비율을 기록한 점에 눈이 띈다.

이는 ‘영끌’ 주택 매수의 결과라는게 차 의원의 분석이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2천331만원으로, 그중 주택담보대출이 7천267만원(57.9%)에 달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서 40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년 말보다 8조1천억원이나 증가했다.

차 의원은 “내수의 주축이 돼야 할 40대 빛의 늪에 빠졌다”며 “최근 5년 내 LTI가 최고 수준으로, 코로나19 당시 상황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LTI 증가세는 집값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가 자산 가격 안정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콘진원 ‘K-콘텐츠 엑스포 in 인도’ 첫 개최

수출상담 405건, 상담액 294억 등 성공적 비즈니스 협력관계 구축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K-콘텐츠의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 9-12일 나흘간 인도 뉴델리에서 ‘2024 K-콘텐츠 엑스포 in 인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K-콘텐츠 엑스포는 국내 우수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판로 확대

를 지원하는 수출 상담 행사다.

강한 내수시장으로 진출이 어려웠던 인도에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캐릭터, 만화 등 우수한 K-콘텐츠를 선보이고, 코로나19 이후 인도 내 영향력이 크게 증가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진출 가능성을 엿보고자 올해 처음 인

도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CJ ENM ▲KBSM 디어 ▲문화방송 ▲스튜디오에스 ▲하이프 등 국내 우수 콘텐츠기업 29개사가 참여했으며 이들 기업은 인도 내 주요 바이어 74개사와 수출 상담을 진행하며 해외 진출 및 비즈니스 협력관계 구축을 모색했다.

행사 기간 진행된 콘텐츠 수출상담회에서는 총 405건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그 결과 2천116만달러(한화 약 294억원) 규모의 상담액을 기록했다. /안태호기자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어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어린이집·유치원·한옥 내·외부·방바닥·전원주택·경로당·아파트·펜션·찜질방·카페·휴집
외벽·독채·양어장·물탱크·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 재료를 엄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 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저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공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